

현장과 시각

불붙은 U대회 유치경쟁



정후식

사회부 부장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유치 경쟁 구도가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 특히 광주와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던 독일 함부르크가 유치를 포기, 향후 유치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도선 선인 이후 활발한 유치활동을 펴온 함부르크는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스포츠 인프라와 국제적 지명도에서 광주보다 앞선 것으로 평가되던 이 도시는 지난 8월 올림픽이 치러진 베이징에서 조지 길리안 FISU 집행위원장을 초청, '함부르크 나이트' 행사를 갖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나머지 경쟁도시들의 저력도 만만치 않다. 캐나다 에드먼튼은 지난 1978년 영연방대회와 1983년 하계 U대회, 2001년 세계육상경기대회 등의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를 잇따라 개최, 국제 대회 개최 역량을 검증받은 바 있어 최대 라이벌이 될 전망이다.

2013년 U대회 유치 과정에서 광주와 경쟁했던 스페인 비고도 두 번째 도전인만큼 적극적인 유치전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 포즈난도 네 차례나 의향서를 제출하며 꾸준히 준비해 온 도시다. 올 초 광주의 해외 유치활동 과정에서 차기 대회 유치 의사를 밝히며 교차 지지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진 대만의 타이베이도 부담이다.

광주가 이들 도시를 따돌리고 U대회 유치가 성공하려면 경쟁 국가를 압도할 수 있는 치밀한 유치전략 마련이 절실하다. 2013년 대회 유치과정에서 미흡했던 시민사회와 소통, 경쟁도시에 대한 총괄 정보 수집, 재정 확보는 물론 국가적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로드맵을 조기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개최지 결정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7개월뿐이다. /wh@kwangju.co.kr

‘北 모종의 중대 발표설’ 정부 “확인된 사실 없다”

북한이 모종의 중대발표를 앞두고 해외주재 외교관에게 근무지를 이탈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일본언론 보도와 관련, 아직까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베이징의 한 대북소식통은 19일 “북한 당국이 해외주재 외교관에게 대기명령을 내렸다는 첩보와 관련, 주중 북한대사관의 움직임은 주시하고 있지만 특이동향은 감지되지 않고 있으며, 공무원행위로 외지에 출장을 나가 있는 일부 북한대사관 인원들도 현재까지 베이징으로 복귀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베이징의 또 다른 대북소식통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조치와 관련, 북한이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게 해외주재 외교관에게 대기명령을 내릴 정도의 중대발표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선양 주재 북한총영사관에서도 리기범 북한총영사가 지난 17일 철보산호텔에서 열린 라오닝성 동포연인인 요령조선문보 창간 50주년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등 대외활동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일본 언론은 18일과 19일 잇따라 북한 당국이 임박한 중대발표를 앞두고 해외 공관에 근무지를 이탈하지 말라는 대기명령을 내렸으며, 중대발표의 내용은 남북관계 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변과 관련된 내용이거나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세계 경제 위기 회견 호세 마누엘 바로소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오른쪽)이 18일(현지 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을 비롯,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은 이날 최근 경제 위기해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금융위기, 자금난 겪는 신흥국에 IMF “무제한 긴급 용자”

국제통화기금(IMF)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자금난에 빠진 신흥국에 대해 무제한 긴급 용자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을 하고 있다고 니혼케이자이 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제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용자액 상한을 설정하

지않고 심사 기준도 대폭 완화하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IMF는 긴급지원 요청을 한 아이슬란드와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에 대해 긴급 이사회를 개최, 용자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문에 따르면 IMF에는 그동안 차용

국이 줄어든 관계로 대부분 가능한 자금이 약 2천100억달러나 쌓여있어 신흥, 중소국이 금융기관 자본 보장을 위한 국가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제한 대출토록 한다는 것이다.

IMF 회원국은 통상 각자 각출 범위내에서 빌릴 수 있으나 이번에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발단으로 하는 금융위기로 신흥국의 경제 규모를 초월하는 금융기관의 구제를 위해서는 상한철폐가 필요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24~25일 중 베이징 ASEM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 갖기로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오는 24-2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기간에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8일 “일본측이 최근 베이징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싶다는 뜻을 전해 와 이를 긍정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7월 일본

의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영유권 명기 강행으로 양국간 ‘서클외교’가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이번 회담이 관계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정상회담은 아소 내각 출범후 양 정상간의 첫 대면이어서 독도나 역사 문제 등 민감한 이슈보다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위기 대책과 북핵 6자회담 감조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세계 금융위기 대응책 마련·재발 방지 부시, 주요국 정상회담 개최 발표할 것”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세계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조지 부시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세계금융위기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할 것이라고 미 행정부 고위당국이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이명박을 요구한 이 관리는 “부시 대통령은 요구하는 대로 금융위기 대응책과 자유시장체제를 보존하기 위해 미래에 이런 위기의 재발을 막는 방안을 논의하는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임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 논의에 참가해 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고 이 관리는 덧붙였다.

부시 대통령은 18일 오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호세 마누엘 바로소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위원장을 대통령 휴양지인 메릴랜드주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오바마·매케인 격차 3%P까지 줄어 美 대선 여론조사... 부동층 유권자 조사 8%P 차이

미국 대선후보인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간 지지율 격차가 3% 포인트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발표된 로이터-세스스-조그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바마와 매케인의 지지율은 각각 48%, 45%로 나타나 전날에 비해 1% 포인트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특히 부동층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전날의 16% 포인트에서 8% 포인트로 좁혀졌다.

여론조사기관인 조그비 관계자는 매케인이 공화당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고, 대선 당일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층 사이에서 기반을 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Gwanneung Education' (관내영교육학) featuring a large title,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subjects like '교육학', '관내영', '전공국어'.

Advertisement for 'Juseon Korea' (주옥션코리아) real estate agency, listing various properties with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

Advertisement for 'Benesse' (베네슈) shoes, featuring images of various shoe styles and text promoting their health benefits and quality.